

# 목포시, 수산식품산업 기반 구축 속도...TF 본격 가동

### 해양수산환경국장 등 9명 팀 구성...별도 외부 자문단도 운영 2026년까지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마른김 거래소 곧 개소

목포시가 수산식품산업 활성화를 TF(특별작업반)를 가동하는 등 미래 산업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목포시는 수산식품수출단지과 국제 마른김거래소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실무 추진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는 수산식품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총 1137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4만 6612㎡ 규모의 수산식품수출단지를 조성 중이다. 이 단지는 가공·수출·연구개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설로,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시장 확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곳에는 36개실의 임대형 가공공장, 국제마

른김거래소, 연구시설, 냉동·냉장창고 등이 들어선다. 임대형 가공공장은 2만 7000여㎡ 연면적에 지상 5층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갖춘다. 수산식품의 가공 유형별·업체별 입주요를 고려해 670㎡ 20개실, 735㎡ 12개실, 1300㎡ 4개실로 구분된다. 연구개발(R&D) 시설은 3200여㎡ 연면적에 지상 4층 규모로 수산식품 가공, 상품화, 마케팅, 글로벌 인증 및 수출 등에 특화된 실용적 연구개발·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시는 마른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제 수출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마

른김거래소도 함께 조성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목포시 미래 100년을 책임질 핵심 전략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1일 해양수산환경국장을 중심으로 한 9명의 실무 추진 TF를 구성하고, 시청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매월 2회 정기회의를 열어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며,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도 별도로 운영해 분기별 회의를 통해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수산식품수출단지과 국제 마른김거래소는 목포 수산식품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중대한 사업"이라며 "TF를 중심으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성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지난 11일 해양수산환경국장을 중심으로 한 9명의 실무 추진 TF를 구성하고 시청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목포시 제공>

## 해남군, 물김 위판액 1153억원...2년 연속 1000억원 돌파

### 김 시설량 감축 등 가격 폭락 조절

해남의 2025년산 물김 위판액이 1153억원을 돌파했다. 이는 전년도 전체 위판고인 1138억원을 뛰어넘는 것은 물론 2년 연속 위판고 1000억원을 달성한 것이다. 위판고 증가는 물김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가량 많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2025년 해남산 물김 생산량은 현재까지 총 7만8159t을 기록했다. 올해는 안정적인 해황과 초기 채묘시기에 꺾병 발생이 거의 없었던 점 등이 고품질 김 생산에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수출이 2년 연속 1조원을 달성하고 수출국 또한 2010년 66개국에서 2023년 122개로 확대되는 등 해외의 한국 김(K-Gim)의 큰 인기가 바탕이 되어 물김 수요가 증가한 것도 큰 요인이 됐다. 올해 물김 위판은 오는 23일 전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생산량과 위판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025년 물김 생산은 지난해 폭염으로 인해 채묘 시기가 늦어진 데 이어 1월 들어 흉수 출하에 따른 물김 위판가의 하락과 폐기 등 위기를 극복하고 최



화산 구성항 물김 위판 장면.

대 위판고를 달성해 의미가 크다. 군은 물김 가격 하락에 해남군의회, 해남군수협 및 김생산어민연합회와 함께 대책회의를 갖고 해결책 마련에 고심한 결과 출하조절 사업 예산을 증액해 2억 4000만원을 투입, 물김가격 하락에 발 빠르게 대처했다. 이와 함께 수급 조절을 위한 어업인들의 김 시설량 감축 등 자정 활동이 이어지면서 물김 가격 안

정화에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위판고 증대의 성과를 거뒀다. 해남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김 양식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지속 가능한 김 양식 생산을 지원하겠다"면서 "생산이 종료된 어장 내 김 양식시설물이 조기 철거될 수 있도록 지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이한철 전 목포상의 회장, 발전기금 7억 기탁



목포시는 지난 14일 이한철 전 목포상공회의소 회장과 7억원 기탁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 전 회장은 지난 60여년간 경영해 온 목포 시내버스 사업을 지난해 12월 31일 종료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회장은 "60년간 시내버스를 운영하며 때로는 좋은 일도 때로는 나쁜 일도 있었지만, 마지막을 사회공헌으로 마칠 수 있어 기쁘다"며 "목포시9가 공영버스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혁신의 첫발을 내디딘 것 같아 흥분하게 정든 시내버스를 떠나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목포시장 권한대행 이상진 부시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의 기업인으로서 사회적 의무를 다해준 이한철 전 회장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목포 발전에 기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번 기탁금 7억원 중 5억원은 이 전 회장이 목포시 대중교통 발전에 계속 기여하고 싶다는 뜻에 따라 대중교통 분야에 사용된다. 나머지 2억원은 인재육성재단과 사회복지재단의 장학금 등으로 쓰인다. /목포=박희석 기자 kyl@kwangju.co.kr

## 전남자치경찰 공모 사업 선정

### 영광군 사고 다발 지역 안전 강화

영광군이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주요 교차로 안전 기반 시설을 대폭 강화한다. 영광군은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지역공동체 참여 교통환경개선 사업' 공모에 선정돼 11월까지 8개월간 1억원을 들여 영광읍 일대 중심지의 교통안전 시설을 보강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주민·지자체·경찰간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데 집중한다. 사업 대상지는 신하교차로, 종산교차로, 남천사거리 3곳으로 과속 단속 카메라 2기, LED 유도등을 포함한 활주로형 횡단보도 2곳을 설치한다. 영광군은 사업이 선정에 앞서 지역 안전 주민참여단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와 실무협의회를 거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영광=전봉환 기자 jbh@

## 진도군 임산부 가정 임신·출산 축하물품 전달

진도군은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산부 가정에 임신·출산 축하물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축하물품 지원사업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출산 가정이다. 첫째아 출산 가정에는 이유식 밥술,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는 자동차용 어린이 의자(카시트) 또는 유아차, 유아용품(다둥이 해피박스)을 진도군 보건소에서 출산 가정에 직접 방문해 지급한다. 또한 산후 조리비 확대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진도군의 2024년 출생아 수는 출산 친화적 정책

강화에 따라 2023년 대비 20% 증가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전달식을 계기로 지역 내 출산 장려 분위기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진도군' 실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출산·양육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



## 완도해양치유센터, 효·다자녀·향우 할인 이벤트

### 30%·50% 등 각종 할인 혜택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은 '2025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완도해양치유센터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16일 밝혔다. 완도해양치유센터는 해수, 해조류, 머드 등 해양자원을 활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시설로 한국관광공사 주관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됐다. 개관 이후 전년 기준 7만여명이 다녀가며 우리나라 대표 치유 시설로 자리매김했다. 공단은 더 많은 이용객이 해양 치유를 통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조부모와 함께하는 효(孝) 여행, 다자녀·육아 가족, 향우 등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할인한다. 65세 이상 조부모를 동반하여 효(孝) 여행을 온 6인 이상 가족 전원에게는 6월 30일까지 3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저출산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추진하는 다자녀·육아 가족 대상 이벤트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50%를 할인하며, 셋째 자녀에게는 테라피 제품도 증정한다.

산후조리 중인 산모와 동반 1인까지 50%를 할인한다. 오는 12월 15일까지 8개월간 향우(재경, 재광, 재안산 등)들을 위해 동반 3명까지 주중 50%, 주말 30%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지역 상생 방안으로 관내 식당, 숙박업소,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5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 대상으로 해양치유센터 방문 시 영수증을 제시하면 동반 2인까지 30%를 할인한다. 완도-제주 항로를 오가는 대형 카페리 '골드 스타라호' 취항 기념으로 한일고속페리 이용객은 센터를 방문하여 탑승권을 제시하며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지역 관광지와 협력으로 목포 해상케이블카 등 제휴 협약된 관광지 이용객이라면 영수증 제시로 센터 이용 30% 할인이 가능하다. 센터 이용료 할인 및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문의는 완도해양치유센터(061-550-7676)로 하면 된다. 이재민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이사장은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완도를 찾는 모든 분이 센터에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며 힐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신안군 1호 나눔명문기업 '신안천사김' 가입식

신안군은 지난 15일 신안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신안천사김(대표 권동혁)의 '신안군 1호 나눔명문기업' 가입식을 가졌다. <사진> 나눔명문기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년 이내 1억 원 이상을 기부하는 고액 기업 기부자 프로그램이다. 신안군천사김의 이번 가입은 전남에서 22번째, 신안군에서는 최초이다. 신안천사김은 신안 정정해역에서 전통 방식으로 양식한 김을 원료로 사용해 해외에 우리나라 김

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는 기업이다. 지난 2022년에는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하며 수출기법담을 수상하고, 2023년에는 국내 최초 FDA 식품인증기준 통과했으며,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신안천사김 권동혁 대표는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기업으로 나눔은 당연한 책임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 공헌을 통해 지역사회와 8상생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완도군, 국비 106억 투입 도서종합개발사업

56개 마을 도로정비·LPG 배관망 리 등산로 진입로 개설, 모동리 마을 안길 포장 등이다. 완도군은 도서종합개발사업에서 배제된 소규모 어항 개발과 마을 진입로, 관광지 정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군비 57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섬지역의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위해 완도군은 올해 국비 106억원을 확보했다. 주요 사업 대상은 금일읍 소량도·월송리와 보길면 예작리·청봉 물양장 확장, 노화읍 북고리·충도리 선착장 정비, 군외면 흑림도 도로 정비·LPG 배관망 설치, 청산면의 노을길 경관 조성과 여서

리 등산로 진입로 개설, 모동리 마을 안길 포장 등이다. 완도군은 도서종합개발사업에서 배제된 소규모 어항 개발과 마을 진입로, 관광지 정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군비 57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지난해에는 149억원을 투입해 금일 동백지구 소규모 어항 정비 등 49곳의 사업을 마무리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도서 종합개발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수산물의 원활한 생산과 수송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라며 "섬지역을 활력 있고 살기 좋은 곳으로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